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<b>보 도 자 료</b>			
	보고	2018. 7. 27.(금) 조간	배포	2018. 7. 26.(목)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김종호 팀장(3145-8136), 김종환 수석조사역(3145-8142)		

**제 목 : 주식·선물 거래를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 주의!**  
**- 소비자경보 “주의” 발령!**

<b>■ 소비자경보 2018-4호</b>			
등급	<b>주의</b>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**소비자 경보 내용**

- 1 주식·선물 투자시 수익률 300%까지 무료 리딩(투자 지시·권유)을 해준다며 도박형 사기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
- 2 주식·선물 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,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

**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**

- 최근 주식, 선물 등의 상승·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·상담 건이 다수 접수
  - 사기업자는 “자신들의 말대로만 투자하면 3배 이상 벌 수 있다”며 고수익을 제시하고 주식·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
  - ‘18.5월말부터 현재(‘18.7.13.)까지 제보·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 건수는 12건, 피해금액은 총 2.5억원\* 발생

\* 1인당 최대 피해금액은 8천만원

◆ 피해자들은 ‘떡튀’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며,

- 금감원에 상담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주식·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사기수법이 교묘\*하여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

\* 일부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수익을 낸다는 사기업자의 말만 믿고 ‘묻지마’식 투자를 한 상황

## 2 구체적인 사기 수법 ※ 피해자의 상담 사례를 재구성

- 1 (유인)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리딩(투자 지시·권유)대로만 따라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유도

☞ (사례) 원금의 300% 수익률까지 무료 리딩

무료 리딩이 끝나면 리딩수수료(수익금의 10%)를 지불하는 유료회원으로 전환 가능

- 투자자를 가장하여 해당 전문가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냈다며 상담 한 번 받아보라는 형태의 홍보글도 존재
- 이용자가 의심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면서 확실한 신용을 강조
- 투자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\* 가입을 유도하고, 투자금은 “가상계좌가 발급”되었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\*\*을 유도

\* 불법 사이트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어 담당 매니저의 추천 없이는 가입 불가

\*\* 투자금을 입금하면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에 사용되는 예치금으로 전환

② (실행) 이용자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주가, 선물 등의 상승·하락에 베팅(일종의 '홀짝게임')

- 이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, 베팅하는 주가, 선물 등의 상승·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임의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

☞ (사례) 이용자가 당일 오후 4시~11시 사이에 베팅(금액 제한 없음)을 하면 다음날 오후 1시경에 베팅 결과를 알려줌

매일 30만원 베팅시 25만원의 수익이 발생되고, 1천만원이 한달 만에 3천만원이 되는 등 이익이 난 것처럼 전산화면상 예치금 증가

- 이용자가 추가 투자를 희망하나 돈이 부족하면 전담 매니저가 돈을 빌려준다\*며 피해자의 가용자금을 모두 입금하도록 유도

\* 불법 사이트의 거래화면에 이용자의 송금액과 매니저가 빌려준다고 했던 돈이 합산되어 예치금으로 표시될 뿐 실제 자금거래는 없음

- 간혹 소액의 수익금을 출금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사기수법('미끼')에 불과

③ (잠적) 이용자가 수익금의 인출을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 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

☞ (사례) 아이디 총돌, 디도스 공격 등으로 아이디 로그기록이 삭제되었고, 신규 아이디를 만들어 기존 투자금을 추가 입금해야 기존 로그기록이 생성됨 → 자금 이전을 통해 투자금 회수 가능

세금 및 수수료 문제 등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 필요 → 양도 신청을 통해 투자금 회수 가능

- 이용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추가 입금하면 피해금액이 2배로 증폭되고, 이후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(속칭 '떡튀')

- 사기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한달에 한번 꼴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고 있으며,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도 운영

### 3 소비자 유의사항

#### 1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광고글은 무조건 의심

- “수익률 300% 보장”, “원금의 3배까지 무료 리딩” 등 터무니없는 수익률에 현혹\*되어 ‘묻지마’ 투자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
  - \*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의심
-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률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어려우므로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
- 사기업자는 홈페이지상 회사명과 전혀 다른 법인 명이나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

#### 2 금융투자상품 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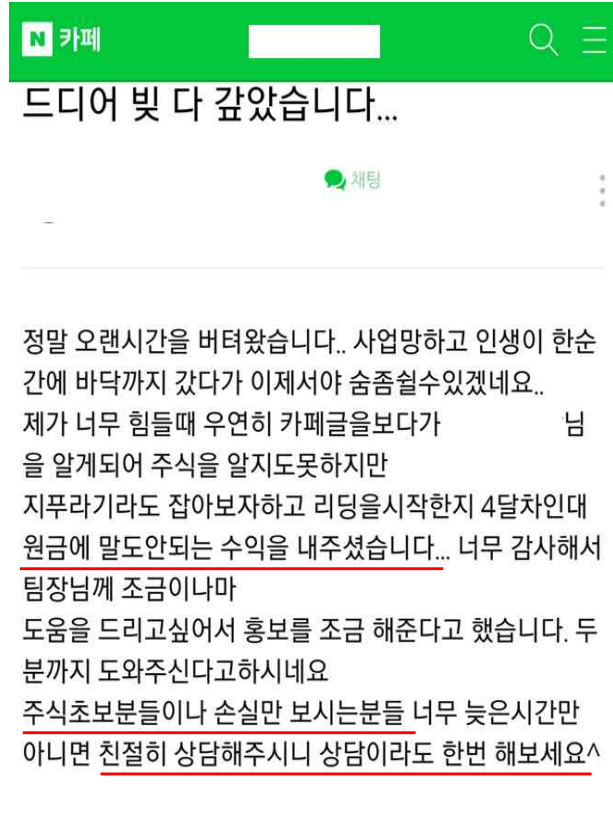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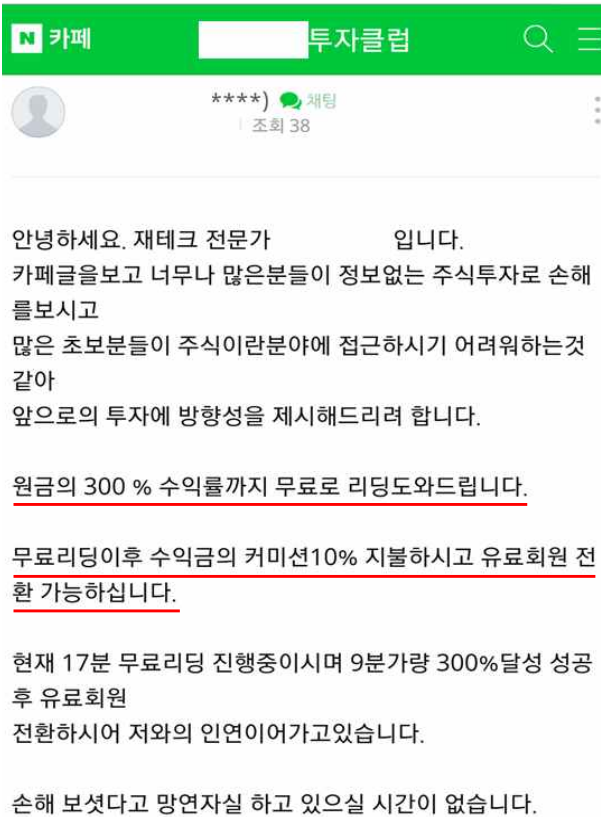
- 주가, 환율 등의 상승·하락을 단순 예측하여 단기간에 손익을 실현하는 상품(일명 ‘바이너리 옵션’\*)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,
  - \* 바이너리 옵션 : 현시점의 주가, 환율 등의 가격보다 미래 특정시점(예 : 1시간 후)의 가격이 상승·하락할 것인지 단순 예측하여 이익을 실현하거나 투자금 전체를 잃는 “all-or-nothing” 구조로 운영
- 사기업자와의 거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\*한 후 거래
  - \* 파인(fine.fss.or.kr) 홈페이지 → ‘제도권 금융회사 조회’

#### 3 인터넷상 불법 사기업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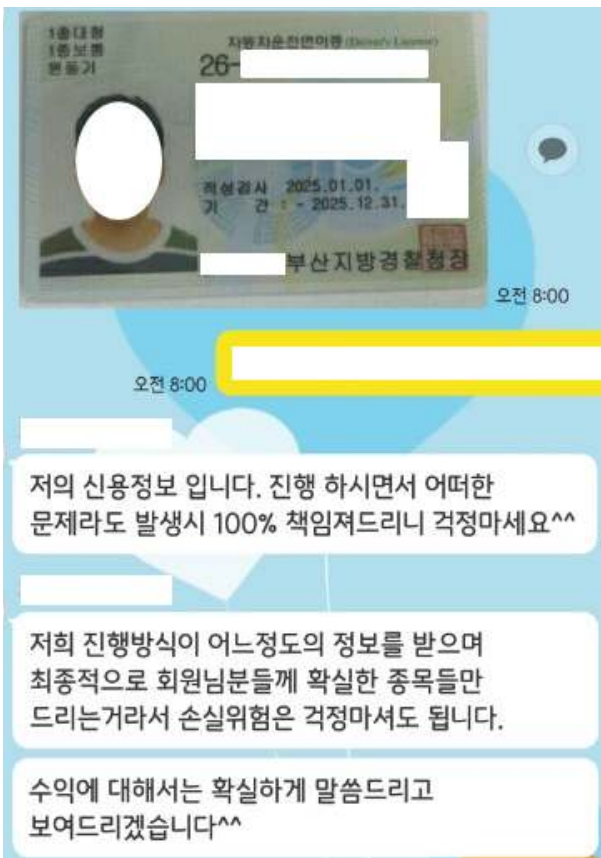
- 주식·선물 거래를 빙자한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,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\*
  - \* www.fss.or.kr ⇒ 민원·신고 ⇒ 불법금융신고센터(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**①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글 게시**



**② 신분증 전송으로 신용 강조**



**③ 주가의 상승·하락에 베팅**

국내 종목		18:00
CJ제일제당	1.93 1.93	(하락)CJ제일제당
CMG제약	1.93 1.93	(하락)CMG제약
KB금융	1.93 1.93	(하락)KB금융
KT&G	1.93 1.93	(하락)KT&G
LG전자	1.93 1.93	(하락)LG전자
LG화학	1.93 1.93	(하락)LG화학
NAVER	1.93 1.93	(하락)NAVER
SK하이닉스	1.93 1.93	(하락)SK하이닉스
경동나비엔	1.93 1.93	(하락)경동나비엔
넷마블게임즈	1.93 1.93	(하락)넷마블게임즈
뉴프라이드	1.93 1.93	(하락)뉴프라이드

④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상호·디자인을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 운영  
 【사기업자의 홈페이지】



【정식 금융회사의 홈페이지(현재 투자자 유의사항 팝업 안내 중)】

